

연구·제작·발사 시설 집적화... 지역발전 이끌 우주산업 메카로

고흥 우주시대를 준비하자
6 우주항공클러스터 성공하려면



고흥군은 우주·항공·관광 등 3개 분야, 14개 사업에 오는 2021년까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연구, 제작, 발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우주항공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은 고흥군 동일면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에서 체험활동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주·항공·관광 14개 사업에
 2021년까지 1조6000억 투입 조성
 열악한 재정·무관심으로 '제자리'
 기업투자 등 끌어낼 정부 의지 절실

일본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마니 마타네초 나카베 마을은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1km 남짓 떨어져 있다. 우주센터 건설 당시 예상했던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 효과 등 '시너지 효과'는 주민 기대에 못 미쳤다.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에 관광객을 끌어올 일만찬 편의 시설도 충분하게 조성되지 못했고 기업들은 센터 주변이 아닌, 타 지역에서 관련 장비를 만들어 공급했다. 당연히 우주센터가 있는 섬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우주산업 관련 활성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우주센터는 '발사' 전용 기지로만 남았다. 1969년 우주센터가 지어진 뒤 40년이 넘었지만 마을에 '생기'는 돌지 않고 있다.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은 어떨까.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 클러스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및 기업들의 무관심, 정부의 육성 의지 미흡 등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관심을 끌만한 지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없다면 일본 다네가시마의 사례를 답습할 지 모른

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고흥군도 추상적인 밑그림이 아닌, 고흥이 갖고 있는 지역성과 미래 우주산업 발전을 이끌 핵심 컨텐츠 발굴을 통한 청사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고흥 우주 클러스터=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과 우주 산업을 연계한 '고흥 우주 클러스터' 계획을 추진 중이다.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제작·발사가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집적화' 시설을 만들자는 게 골자다.

나로우주센터(2980억), 우주항공센터(260억), 우주과학관·청소년우주체험센터 등 교육문화시설(967억 원) 등 우주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태다.

고흥군은 여기에 항공우주 연구·시험 시설을 집적화하겠다는 계획을 구상해놓고 있다. 항공기 비행시험이 이뤄지는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관측장치와 송신기를 탑재한 과학 로켓 발사를 위한 과학로켓개발센터, 우주 비행체 시험 센터, 우주항공 연관 산업단지 등 14개나 된다.

이러한 청사진을 실현해 국내 '우

주'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게 고흥의 구상이다.

박병중 고흥군수는 "일본도 2003년 3곳의 우주 기관이 JAXA로 통합되면서 기술 발전에 속도가 붙었고, 프랑스는 프랑스국립우주연구소(CNES)의 본부인 파리에서 우주센터가 있는 툴루즈로 1500여명의 인력이 유입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냈다"면서 "클러스터 조성은 불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우주산업 상업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라 말했다.

◇정부 지원, 국민 관심 절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열악한 재정 형편 탓에 고흥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나로우주센터 2단계 확장 공사가 끝나는 2016년이면 75t급 액체연진 연소시험 등 발사체와 관련된 주요 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한국형발사체(KSLV-

Ⅱ)의 개발 시기를 오는 2019년으로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국형발사체, 위성개발 등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 3220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계획대로 이뤄질 지 불확실한데다, 그나마 우주산업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비용도 많지 않다. 언제 활성화될 지 모르는 일에, 정부의 우주 산업 개발 의지도 확실할 수 없어 관련 기업들이 무작정 투자할 리 만무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관련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내 우주산업이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3000억원 규모의 우주 시장(하우연 추정)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에서 고흥도 국내 비행시험에 적합한 지리적 요건, 저렴한 입지 여건 등을 관련 기업들에 적극 홍보하는 등 투자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

〈끝〉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주랜드 등 위락시설 유치 신중 기해야”

이철형 나로우주센터 센터장

정부가 현재 관심을 쏟는 부분은 한국형 발사체의 성공이다. 국내 우주산업과 고흥 우주클러스터도 발사체의 성패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단계 확장 사업을 통해 작은 부품부터 엔진에 이르는 모든 시험 설비가 갖춰지게 되면 당분간 나로우주센터도 한국형 발사체의 시험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대로라면 2016년, 우주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 기초시설이 갖춰질 계획이다.

하지만 고흥은 도로나 숙박시설 등 기본 인프라 부족

한 상황이다.

나로우주센터가 발사체의 발사, 시험장으로서 전방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정부의 지원도 확대될 것이고 발사체 관련 기업도 따라 오게 될 것으로 본다. 벌써 나로우주센터 앞에 미리 땅을 구입한 기업도 있다고 한다.

클러스터 조성도 우주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정부의 계획에 맞춰 천천히, 충실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우주랜드나 'sky sea'와 같은 위락시설에 대한 논의는 신중할수록 좋다.



“업체 부지 임대·연구기관 유치 급선무”

공창덕 조선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우주산업체가 고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수다. 값싼 토지비용과 공역은 고흥의 장점이다.

항공·우주산업체에 부지를 임대해주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항공산업이 발전한 사천 등에서 미처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체, 예를 들면 항공 부품을 제작, 공급하는 산업체나 정비·수리 산업(MRO)체를 유치하는 것도 클러스터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연구기관 유치도 적극 나서야 한다.

대학이나 광우과기원을 통한 항공우주 인력 양성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고흥을 꺼리는 경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시험장, 시험시설이 필요한 연구기관 유치하는 것 외에 연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고흥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유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장’ 상초월 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